

조금 늦은 편지를 쓰며...

이식 후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야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식 받고 나서도 회복하는 동안 몸도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편지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다행히 몸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지난 2년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부모님이 편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런 황당한 병에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연말에 TV에 나오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시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조마조마하기도 했지요. 많은 고비를 넘기고 다행히도 '건강한 20대 남성의 조혈모세포' 즉, 공여자님의 그것을 이식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여자님은 저 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를 살리신 분이예요. 주위 환자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공여자를 찾지 못해 해외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해외에서도 찾지 못해 그냥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국내에서 찾는다고 해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조혈모세포를 받는 실정이라 저는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지로 저에게 감사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정말 감사드려요.

저 역시 이번 일로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던 부모님과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또 그 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가 어서 건강해져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꼭 효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허락해 주신 공여자님의 부모님과 공여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께

안녕하세요.

어렵사리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기증해 주신 조혈모세포를 받은 어머니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흔쾌히 조혈모세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군 입대 날짜까지 미뤄가면서 기증해주셨고, 힘든 군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2차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제님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형제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어머니께서는 단 22일이었지만 병원 밖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었고, 다시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바로 입원했습니다. 항암치료를 다시 하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시는 바람에 관찰지 않을까 했었지만, 아직도 어머니 몸속에서 활개 치는 나쁜 세포들도 함께 회복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이 미루어져 버렸네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어머니 병간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기에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저 뿐만 아니라 형제님도 저희 어머니가 완벽하게 회복되길 소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막상 써내려가니 짧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네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줄던 나쁘던 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이지만 형제님의 숭고하고 귀한 뜻을 생각해서라도 잘 버틸 것이고 어머니도 툭툭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연락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수혜자 아들 드림

고운님께

안녕하세요? 고운님...

고마운 님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고운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솔비(우리 아이의 태명)가 2007년 가을에 고운님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 받아 힘든 시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우리 솔비가 퇴원하여 새로운 첫발을 디디게 되는 뜻 깊은 날에 고운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네요. 생각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덧 한 해를 훌쩍 넘겨버리게 되었어요. 작년 5월, 유난히도 별이 따뜻했던 날에 생후 5개월 된 우리 솔비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나 생기는 일이 내 아이에게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생후 5개월, 악성백혈구 40만개/mm³... 정상인의 40배... 백혈병이란 진단이 채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초기 암세포가 너무 많아 급히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무사히 치료를 받아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지독한 암세포들과의 힘든 전쟁을 우리 솔비가 잘 이겨냈고, 고운님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아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뒤집기를 하고, 앉고, 이도 나고, 난간을 잡고 흔들흔들 쳐기도 하고... 요즘에는 어찌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우리 솔비를 보러 오신답니다. "예쁜 짓~"하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검지를 불에 대며 웃기도 하고... 이런 솔비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니 무척 아쉬워요. (우리 솔비가 엄마를 닮아서 엄청 예쁘거든요!!)

고운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솔비를 낳아 기른 부모이지만, 고운님은 우리 솔비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저희들도 고운님의 예쁜 마음을 본받아 작은 사랑을 베풀려고 해요. '조혈모세포기증'이란 것을 우리가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수혜자가 되고 보니 조혈모세포기증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의사들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운님! 고운님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분일 것 같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솔비의 엄마가 고운님께